

2009 년 봄학기
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
하나님의 성전인 교회—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—의 내재적인 의미

메시지 7

다윗의 자손이시자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신 그리스도께서
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시는 길

(2)

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

성경: 삼하 7:12-14 상, 마 1:1, 12:23, 42, 16:18, 엠 2:21-22, 3:16-17 상

- I. 다윗의 자손이시자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신다—삼하 7:12-14 상, 마 1:1, 12:23, 42, 16:18, 요 2:19-21, 14:2-3, 20, 23.
- A. 건축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건축해 넣으시고 사람을 그분 자신 안으로 건축해 넣으시는 것이다.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다—엠 2:21-22, 3:16-17 상.
 - B.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그분 자신이 우리와 연합되시어 그분은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내용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—요 14:20, 15:4-5, 엠 3:16-21, 4:4-6, 16.
 - C.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은 신성과 인성의 요소가 내재적으로 연결되어 한 유기적 실체가 되면서도 요소는 그 연결 안에서 구별되는 것이다.
 - D.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체이시다—눅 1:31-35.
 - E.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것이다.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-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—고전 6:17, 딤후 3:17.
 - F.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확대, 즉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체이신 분의 확대이다—엠 1:22-23, 4:4-6, 16.
 - 1. 복음서들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은 머리를 산출했다—1:22-23.
 - 2.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확대는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했다—4:15-16.
 - 3. 그리스도의 몸은 절대적으로 연합된 영 안에 있는 것이다.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 있는 것은 연합된 영 안에 있는 것이고 연합된 영 안에서 사는 것이다—롬 8:4-6, 12:4-5, 고전 6:17, 12:12-13, 27.
 - 4.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이 그들 자신과 연합되시도록 허락해 드리고 하나님과 연합된 한 무리의 사람들이다—엠 3:16-21, 4:16.
 - G.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최종 완결체일 것이다—계 21:2.
- II.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건축해 넣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존재 안으로 건축해 넣으신다. 이러한 건축이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다—삼하 7:12-14 상, 마 16:18, 요 14:23, 엠 3:17 상.

- A.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성을 우리의 인성 안으로 건축해 넣으시고 우리의 인성을 그분의 신성 안으로 건축해 넣으심으로 그분의 신성과 우리의 인성을 연합시키고 섞으시어 한 실체가 되게 하신다—2:21-22, 3:16-17 상.
 - B. 우리 안으로 건축되고 조성되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이시자 우리의 집이시다. 이 집은 하나님과 우리, 우리와 하나님이 한 실체로 함께 연합되는 곳인 상호 거처이다—요 14:2, 23, 15:4 상.
- III. 아버지의 집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구속받고 거듭난 그리스도 안의 믿는이들과 상호 거처를 갖기 위한 것이다—14:2-3, 20, 23.**
- A. 요한복음 14 장에 있는 거처의 준비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하나님이 됨으로 하나님과 사람,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결합되고 연합되어 상호 거처가 되기 위한 것이다.
 - B. 하나님께서는 상호 거처를 산출하기 위해 그분의 구속받은 사람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해 넣으시고 그분 자신을 그들과 연합시키신다.
- IV. 결국 삼일 하나님과 구속된 인성이 연합되고 섞이고 건축되어 하나의 실체—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—계 21:2, 10.**
- A.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조성해 넣으심으로 사람을 생명과 본성과 조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시어, 하나님과 사람이 한 단체적 실체가 되도록 건축된다—18-21 절.
 - B. 새 예루살렘은 신성과 인성이 한 실체로 함께 섞이고 연합된 구성체이다—3, 22 절.
 1. 모든 구성원들이 같은 생명과 본성과 조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 단체적 인격이다.
 2. 하나님과 사람,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건축되고 함께 섞이고 연합된다. 이것이 하나님의 건축의 완결이다.
 - C.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신 분이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인 이 안에 거하시고,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인 이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신 분 안에 거한다—3, 22 절.
- V. 신성한 요소가 인간 요소 안으로 조성되고 인간 요소가 신성한 요소 안으로 조성됨으로 산출된 상호 거처가 우주의 중심과 실재이다—1-2 절.**
- A. 신성이 인성 안으로 건축되고 인성이 신성 안으로 건축된 이러한 놀라운 건축물이 온 우주의 중심과 실재이다—엡 1:10, 22-23.
 - B. “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갈망의 큰 기쁨에 따라, 그분의 경륜 안에 있는 최고의 의도를 위해, 그분 자신을 그분이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건축해 넣으시고 그분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그분 자신 안으로 건축해 넣으시어 신성과 인성의 연합체인 그리스도 안의 한 조성체를 얻고자 하신다. 이 조성체가 그분의 유기체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다. 그리스도의 몸은 그분의 영원한 표현이자, 구속하시는 하나님과 구속된 사람의 상호 거처이다. 이러한 보배롭고 기이한 구조로 된 최종 완결체가 영원을 위한 새 예루살렘일 것이다.”—위트니스 리의 묘비문.